

식민지근대화론의 허구를 벗긴다

일본 위한 개발 아닌 개발, 조선민중 수탈
식민 직전 대한제국 토지·교육개혁 실현, 근대화 훨씬 빨랐을 것



글_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일본의 우익계열 출판사인 후소사관 역사교과서에는 “일제 식민통치가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오히려 축복해야 하는 것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가 작년 3월 일본의 극우 잡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좋은 일도 했다’는 일본측 발언이 ‘망언’으로 규탄 받고 있으나 일본시대 재평가론은 실증적인 젊은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조용히 확산돼 종합잡지에도 이러한 주장이 당당하게 등장하는 변화가 나타났다”(일본 <산케이신문(産經)>, 1997. 8. 14). 여기서 ‘일본시대 재평가론’은 한국에서 일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말하고, ‘실증적인 경제학자’는 서울대학교 낙성대 연구소팀을 일컫는 것 같다.

‘식민지근대화론’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그런 바탕에서 ‘식민지축복론’까지 나타난다. 100년 전 식자들 사이에 우리 힘으로 자립이 어려우니 일본의 보호를 받자며, 일왕에게 합방청원서를 낸 자들이 있었다. 병탄 뒤에는 내선일체론을 펴는 자가 많았다. 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한마디로 계량과 수치, 실증이라는 마술로 가공한 식민지통치 미화론이다. 이와 같은 ‘미화론’은 일제 식민지의 유산과 뿌리가 지식인 사회와 사회 전반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과 공장을 세우고, 교육제도를 정비해 줘서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학설’이다. 사실일까.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자. 일제가 한국을 ‘개발’한 데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 한국을 식량 공급지, 원료 공급지, 일본상품 판매시장, 노동력 공급지, 대륙침략 발판기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제식민지 정책의 본질은 수탈이었지 시혜가 아니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전 국토의 50.4%를 무상으로 약탈했다. 미곡이 52.3% 증산되었다지만 그것은 일본인 지주들의 몫이었을 뿐, 한국인

대부분이 식량을 약탈당하고 초근목피로 연명했다. 1941년 현재 한국내의 공업자본의 94%가 일본자본이었고 한국자본은 6%에 불과했다. 일제가 한국에 세웠다는 공업시설은 대부분 군수공업시설로서 북한지역에 있었고, 남한지역에 있던 몇 개 공장은 그나마 6·25 때 파괴되었다.

일제가 1911년 이른바 ‘조선교육령’을 통해 한국의 민족주의계열 사립학교를 대부분 폐쇄하고 관립학교를 세워 식민지 노예교육을 시켰다. 2,250개의 사립학교가 빼앗기거나 관립학교로 편입되었다. 대학설립을 엄격히 규제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다. “일제시대의 개발은 한마디로 말해 일본인들의 일본인들에 의한 일본인들을 위한 개발이었다”(허수열, <개발 없는 개발>).

“일부에서는 일제가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현대식 교육을 보급하여 후일 한국 등 식민지들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45년 광복 직후 우리의 문맹률은 78%로 영국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의 62%(47년), 짐바브웨의 64%(45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정치적·문화적으로 온갖 굴욕을 당해가면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결과 1인당 소득은 식민지가 되었을 때보다 낮아졌고, 그나마 그 소득도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문맹으로 남아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데도 일제 지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장하준, <미래도 일제 지배가 긍정적이냐>, 중앙일보, 2005. 3. 19).

일제의 침략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근대국가의 발전이 가능했다. ‘내재적발전론’이다. 1898년에 추진된 광무양전 사업이 성공했으면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버금가는 근대적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1905-6년 사이의 대한제국이 실시하려 했던 의무교육제가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근대화가 훨씬 빨랐을 것이다. 일제침략으로 무산되었던 것이다. 근대화라는 그럴듯한 둔사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허구이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